



전남일보와 광주은행이 공동주최한 제30회 녹색환경대상 수상자로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생활환경개선에 앞장선 5개 단체와 기관이 선정됐다.

수상자는 △녹색환경운동을 통한 해양정화 활동과 종합 재활용처리 공장 운영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로 ESG경영을 선도한 조선내화 △2022년부터 업사이클 악기를 개발해 공연, 교육을 시행하며 시민들에게 기후환경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아트

△미래세대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물환경문화 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한 영산강문화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 추진체계 구축으로 2050 탄소중립 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나주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자원 보호와 관리에 앞장서고 있는 ㈜한솔이엔씨 등이다.

시상식은 10일 오후 2시 광주은행본점 3층 KJ상생마루에서 진행된다.

# ‘친환경 경영’ 선도...녹색환경운동 지속 실천

## 종합대상(환경부장관상) 조선내화

제30회 녹색환경대상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은 조선내화(대표 이상암)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ESG경영을 실천하는 성과를 냈다.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핵심 가치를 뜻한다.

조선내화는 1974년과 1978년 잇따라 포항 1·2 공장을 준공한데 이어 1986년 광양공장을 세우며 한국 제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조선내화는 친환경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ECO 여행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지난 5월 광양시중마장애인복지관을 후원해 청소년과 임직원 50여명이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을 찾아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끼의 가치를 학습하고 천연 공기정화와 실내습도 조절에 효과를 제공하는 이끼테라피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조선내화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줬다.

또 다양한 프로젝트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



조선내화 임직원들이 지난 3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광양시 마동생태공원에서 수질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섬진강 생태복원 활동을 펼쳤다. 조선내화 제공

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후세대에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광양시 태인동 일원 해안 정화활동을 매월 시행 중이다.

지난 3월에는 광양민간환경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에 임직원들이 참여해 광양시 마동생태공원에서 수질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섬진강 생태복원·보전에 기여했다. 매년 5월31일에는 ‘바다의 날’을 기념해 광양시

의 대표 관광지인 배알도 일원 정화활동도 시행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프로젝트 참여와 녹색환경 운동으로 깨끗한 자연환경 유지와 지역사회에 환경의 소중함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밖에 조선내화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처리 공장 운영 △컴프레사 개선으로 공장 내 전기에너지 사용 절감에도 매진하고 있다.

국제 내화 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재활용 필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2010년 12월 81억원을 투입해 7200평 규모 재활용처리 공장을 준공했다.

재활용처리공장 구축으로 자원을 재사용·재활용해 반복적으로 순환이용하는 경제체제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연간 226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감축량은 30년생 소나무 2만4902그루가 온실가스를 흡수한 양과 같다.

총 6대의 컴프레사를 교체해 연간 497kWh·40% 전력을 절약했다. 컴프레사 교체를 통한 제품 불량률 저감으로 폐기물도 줄어들어 22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 수치는 30년생 소나무 2만5157그루가 온실가스를 흡수한 양과 동일하다.

조선내화는 앞으로도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상암 조선내화 대표는 “한국은 2016년 파리협정 이후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동맹에 가입했다. OECD국가 가운데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 의존도가 제일 높다”며 “제조업에서의 환경자원화,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친환경 공장으로 변모해 나가는데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업사이클링 악기 연주 공연... 기후위기 의식 전파

### 서한태환경상 크리에이티브아트

제30회 녹색환경대상 서한태환경상을 수상한 크리에이티브아트(대표 이승규)는 버려진 쓰레기들을 업사이클링 악기를 개발해 예술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기후환경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현재 광주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 26명과 협업으로 업사이클링 플라스틱 악기 18대를 활용한 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의 봄 협회가 프랑스 낭트에서 개최하는 ‘제11회 한국의 봄’ 문화 행사에 초청 공연을 펼쳤다. 크리에이티브아트는 내년 8월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페스티벌에 초청받아 공연을 지속할 계획이다.

크리에이티브아트는 꾸준한 공연과 캠페인으로 기후위기 시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



크리에이티브아트에서 활동중인 지역 청년 예술가 26명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해 기후환경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아트 제공

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승규 크리에이티브아트 대표는 “공연을 통해 플라스틱 자원이 업사이클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공연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 세대별 맞춤 영산강 생태·자연 중요성 각인

### 환경교육부문 대상 영산강문화관

제30회 녹색환경대상 환경교육부문대상을 수상한 케이워터운영관리(주)영산강문화관(관장 신성규)은 다양한 분야 교육·전시 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경문화 저변 확대에 공헌했다.

영산강문화관은 광주시와 나주시 경계인 영산강변에 위치해 있어 생태지리적 환경 특색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에 이어 생태·환경 중심의 환경문화 행사도 연중 시행하고 있다. 영산강문화관의 대표 행사인 ‘영산강 환경문화연’을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 대표 환경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산강문화관은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내는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영산강문화관의 ‘영산강 알강 모로강’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환경해설사와 함께 수서생물을 관찰하고 있다. 영산강문화관 제공

신성규 영산강문화관장은 “미래세대들이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습관이 길러지도록 다채로운 환경 교육을 편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나주시, 2050 탄소중립 도시 구축 매진

### 생활속환경실천부문 대상 나주시

제30회 녹색환경대상 생활속환경실천 부문대상을 수상한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시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1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해 녹색성장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체계를 갖췄다.

조례를 기반으로 가정과 상업시설의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현금, 지역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 중이다. 2022년 3225세대 2819만원, 2023년 3743세대 3914만원, 올해 6월 기준 1052세대 1712만원을 지급했다.



나주시 관계자들이 최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주민참여강화를 통한 탄소중립포인트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생활 속 탄소 줄이기 실천방법을 안내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자원 보호·관리

### 자연환경보전부문 대상 (주)한솔이엔씨

제30회 녹색환경대상 자연환경보전부문대상을 수상한 (주)한솔이엔씨(대표 박상욱)는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주)한솔이엔씨는 1996년 11월 설립된 해양환경 생태계 조사 전문 기관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본부와 협업을 통해 지난 2017년 동해 부산·울산 바다숲 조성관리, 2020년 서해안 잘피숲 신규지 추가 조성, 2023년 바다숲 통합관리 사업 등을 시행해 해양보호생물인 잘피류 이식에 주력했다.

사업대상지에 해양보호생물인 잘피류가 서식하고 있어 10여명의 잠수부 운용을 통한 채취·이식을 펼쳤다. 이식면적은 1250㎡, 이식량은 7만1100주



(주)한솔이엔씨 잠수부들이 잘피류를 이식하기 위해 잠수하고 있다. (주)한솔이엔씨 제공

에 달한다. (주)한솔이엔씨는 깨끗한 해양환경자원을 사수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상욱 (주)한솔이엔씨 대표는 “해양 물리·화학조사, 멸종위기 법정보호종 조사 등을 활용해 한국 해양 보전과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